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8년 5월 19일 교육행정직 A형

2018. 05. 1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견해에 맞서 신선한 사고, 국민의 법 감정 등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순기능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 ① 평결에 이르는 과정은 공개한다.
- ② 변호사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는다.
- ③ 법관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평결한다.
- ④ 평결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라는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폴리스는 그 중심지에는 도시가 있고 주변에는 식량을 공급해 주는 들판이 있는 작은 자치 공화국의 형태였다. 폴리스들은 공통의 언어, 문화, 종교를 바탕으로 서로 동류의식을 가졌지만 정치적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다.

강성한 폴리스였던 아테네에는 중앙에 신전과 군사 시설 등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시장이나 공공 모임 장소로 이용하던 아고라가 있었는데, 시민들은 아고라 광장에 모두 모여 공적인 문제에 대해 투표하였다. 개인이 세습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군주정과 달리 아테네와 같은 공화정에서는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를 시민이 선출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구의 일부만이 시민이었으며 아무런 권리가 없는 노예들도 매우 많았고 여자들도 정치적 권리가 없었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는 이처럼 적은 인구의 작은 도시 국가였기에 가능하였다.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전역, 이탈리아 남부와 시실리, 지중해의 다른 해안으로 퍼져 나갔지만 그들은 통일된 정부를 두려 하거나 제국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든 그들은 도시 국가 형태의 폴리스를 만들었고, 어느 폴리스도 도시 국가 이상으로 커 나가지 않았다.

9.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탈리아 지역에도 폴리스가 있었다.
- ② 강성한 폴리스가 제국으로 성장하는 일도 있었다.
- ③ 고대 그리스에는 모든 폴리스를 아우르는 통일된 정부가 있었다.
- ④ 폴리스들은 문화와 종교가 서로 달라서 상호 간에 동류의식이 생기지 않았다.

10. 뒷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아테네의 정치 체제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국가의 지리적 영역이 널리 확장되고 그 인구도 크게 늘게 되면

모든 유권자가 한데 모여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워진다. 그리하여 이들을 대표하여 선출된 대의원들이 국정 문제들을 심사숙고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대의제라 부른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 유권자들은 간접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에 참여한다.

- ① 아테네는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투표권을 가졌었군.
- ② 아테네의 정치 체제는 대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않았었군.
- ③ 아테네는 시민의 대의원들이 아고라에 모두 모여 국정을 결정하였었군.
- ④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는 지도자를 시민이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었었군.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빅데이터는 그 규모가 매우 큰 데이터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많다는 것뿐 아니라 데이터의 복잡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데이터의 복잡성이 높다는 말은 데이터의 구성 항목이 많고 그 항목들의 연결 고리가 함께 ㉡수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복잡성이 높으면 다양한 파생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할 때에는, 구성 항목을 독립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항목들의 연관성을 이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구성 항목이 많은 데이터는 한 번에 얻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수집되었지만 연결 고리가 있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가령 한 집단의 구성원의 몸무게와 키의 데이터가 있다면, 각 항목에 대한 구성원의 평균 몸무게, 평균 키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몸무게와 키의 관계를 이용해 평균 비만도 같은 파생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몸무게와 키의 값이 동일인의 것이어야 하는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구성원들의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따로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을 교통카드의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의 몸무게와 키의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 세트를 통해 비만도와 대중교통의 이용 빈도 간의 파생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얻을 수 있는 파생 정보도 늘어난다.

1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나열하고 있다.
- ② 빅데이터의 특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③ 빅데이터의 동작 원리를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④ 빅데이터의 장단점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2018. 05. 1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2.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빅데이터에서는 파생 정보를 얻을 수 없다.
- ②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양은 매우 많다.
- ③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복잡성은 매우 높다.
- ④ 빅데이터에는 구성 항목들 간의 연결 고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13.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담겨
- ② ㉡: 들어
- ③ ㉢: 섞을
- ④ ㉣: 이어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두류산(頭流山) 양단수(兩端水)를 네 듯고 이제 보니,
도화(桃花) 쓴 물은 물에 산영(山影)조초 잠겨세라.
아희야, ㉠무릉(武陵)이 어디오 나눈 연가 흐노라.

- 조식 -

(나)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바람은 넘실 천 이랑 만 이랑
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 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수놈이라 쫓을 뿐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럴 뿐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야 오늘 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련?

[A]
[B]
[C]
[D]

- 김영랑, 「오월」 -

14. (가)와 (나)의 화자가 지닌 공통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라보고 있는 풍경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 ② 자연의 섭리와 자신의 삶을 대조하면서 결핍감을 느끼고 있다.
- ③ 조만간 일어날 자연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 ④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삶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15. ㉠의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향(故郷)
- ② 낙원(樂園)
- ③ 오지(奧地)
- ④ 정상(頂上)

16. [A]~[D]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마을과 들이 자아내는 색감을 그려내고 있다.
- ② [B] : 바람과 햇빛과 보리가 더불어 빛어내는 장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 : 꾀꼬리들이 이리저리 함께 날아다니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다.
- ④ [D] : 사철 내내 변함없는 산봉우리의 의연한 풍모를 묘사하고 있다.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인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 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 [A] 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코 빼똥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농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었다.

“그러니, 여보게, 미씨다 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 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 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아네, 그놈들을 한 농 냉기지 말구섬 죄 다 붙잡아다가 말아네, 괴수 놈들일랑 목을 썰어 죽이구, 다른 놈들일랑 뺨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주구, 꿇어앉히구 항복 받구, 그리구 빼앗긴 것 일일이 도루 다 찾구, 집허구 세간 쳐부순 것 말끔 다 물리구……. 그렇게만 해 준다면, 내, 내, 재산 절반 노나 주문세, 절반. 응, 여보게, 미씨다 방.”

“염려 마슈.”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머, 지금 당장이래두,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 멘 앵피가 백 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놓니다, 쑥밭을.”

“고마우이!”

백 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덤석 잡는다.



“백골난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 놀 테니, 보슈.”

“자네라면야 어린하겠나.”

“흰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두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바리유.”

미스터 방은 그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꿀쩍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다.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치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짹 뱉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 소위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 (미스터 방이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다.

[B]

“에구머니!”

놀라 질겁을 하였으나 이미 뺏어진 양치물은 쿵쿵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 폭포로 내리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S 소위의 얼굴 정통에 가 좌르르.

“유 데블!”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 소위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향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 하면서 철컹,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 채만식, 「미스터 방」 -

17. [A], [B]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외적인 갈등을 고조하고 있다.
- ② [A]는 공간적 배경의 묘사를 통해 비극적인 분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 ③ [B]는 행동 묘사를 통해 주인공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④ [B]는 과거 사건의 요약을 통해 이야기의 전개를 빠르게 하고 있다.

18.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 주사는 자신이 누렸던 ‘옛날의 영화’를 되찾고 싶어 한다.
- ② 백 주사는 ‘큰 세도’를 빌리기 위해 자존심을 굽힌다.
- ③ 미스터 방은 백 주사의 ‘분필이’를 약속하며 자기를 과시한다.
- ④ 미스터 방은 ‘기관총 들멘 엠피’를 조롱의 대상으로 여긴다.

[19~20]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문은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며,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희를 잘하고 철괴무를 잘 추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네 형은 달문(達文)이다.”라고 놀려 댔는데,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훌훌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령대면서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시늉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 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 버렸다.

광문은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머리를 딸고 다녔다. 남들이 장가를 가라고 권하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하리.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마치 팔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에는 다 못 자게 된다.” 하고 사양하였다.

서울 안에 명기(名妓)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 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

예전에 궁중의 우림아(羽林兒), 각 전(殿)의 별감(別監), 부마도위(駙馬都尉)의 청지기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雲心)의 집을 찾아가 간 적이 있다.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다.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거문고를 타면서 운심더러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운심은 일부러 능장을 부리며 선뜻 추지를 않았다.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좌(上座)에 앉았다. 광문이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가 양양하였다.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 대고, 형클어진 머리로 복상투를 튼 채였다. 온 좌상이 실색하여 광문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려고 하였다.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높으락낮으락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한바탕 추었다. 그리하여 온 좌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 박지원, 「광문자전(廣文者傳)」

- 만석희 : 개성 지방에서 연희되던 인형극.
- 철괴무 : 거지의 형상을 하고 쇠 지팡이를 짚고 추는 춤.

20. 윗글에 제시된 상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이들이 싸울 때 상대방을 광문에 빗대어 욕하는 것은 아이들이 광문을 낭중지추(囊中之錐)로 보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② 길거리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광문의 개입으로 싸움을 멈추는 것은 그들이 광문의 교언영색(巧言令色)에 넘어갔기 때문이겠군.
- ③ 집을 가지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대한 광문의 대답은 그가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④ 기생이 광문에 호응하여 칼춤을 추는 것을 보고 즐겁게 놀았던 손님들이 광문과 벗을 맺는 것은 구밀복검(口蜜腹劍)의 행태라 하겠군.



정답 및 해설

01 ② 국어생활-한글맞춤법

② 애닭구나. → 애달프구나

‘애닭다’는 사어(死語)로, ‘애달프다’로 써야 옳다. 표준어 규정 제 20항을 보면,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古語)로 처리하고,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사어(死語)로 처리되어 버리는 경우가, ‘뽕(→난뽕), 낭(→낭떠러지), 설겅다(→설거지하다), 머귀나무(→오동나무), 오얏(→자두)’ 등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액체 속에 넣다’ 또는 ‘김치·술·장·젓갈 따위를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는 ‘담그다’로서 ‘담가, 담갔다, 담그니’ 등으로 활용한다. ‘담구다’는 표준어가 아니므로 ‘담귀, 담궜다, 담귀서’ 등은 바르지 않은 표현이다.

③ ‘마음이 아플 만큼 안되고 처연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가연다’와 ‘가연다’는 복수표준어로서, 모두 쓸 수 있다. ‘가연다’는 ‘가여워, 가여우니, 가엿고’로 활용하고, ‘가연다’는 ‘가엿어, 가엿으니, 가엿고’로 활용한다. 따라서 제시 문장의 경우 ‘가여운’과 ‘가엿은’ 모두 사용할 있다.

④ 기본형은 ‘까다롭다’는 ‘까다롭(어간)+어(어미)=까다로워’의 구성으로, 어간의 끝음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ㄱ’로 바뀌는 ‘ㄹ’ 규칙활용’ 용언이다.

02 ④ 국어생활-한글맞춤법

<보기>의 내용은 모음 ‘ㅣ’ 뒤에 ‘- 어’가 와서 ‘ㄷ’로 줄 적에는 준 대로 표기하는 형태주의와 ‘지어, 찌어, 치어’의 준말 ‘저, 찌, 처’는 각각 [저, 찌, 처]로 발음하는 표준발음법 규정을 함께 설명한 것이다. 즉 [저, 찌, 처]와 같이 구개음 ‘ㅈ, ㅉ, ㅊ’ 다음에서 ‘ㄷ’ 같은 이종 모음이 발음되는 경우가 없음을 규정한 것이다.

④의 ‘고쳐라’도 ‘고치어라’의 구성으로, ‘고쳐라’로 모음이 줄고, ‘치어’의 준말이므로 발음은 [고쳐라]이다.

[오답 풀이]

① ‘이겨라’는 ‘이기어라’, ② ‘다녀라’는 ‘다니어라’, ③ ‘비벼라’는 ‘비벼어라’의 성으로 표기는 ‘ㅣ’ 뒤에 ‘- 어’가 와서 ‘ㄷ’로 줄 적에는 준 대로 표기하는 형태주의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음은 구개음 ‘ㅈ, ㅉ, ㅊ’ 뒤의 오는 모음의 경우가 아니므로 ① ‘이겨라’는 [이기라], ② ‘다녀라’는 [다녀라], ③ ‘비벼라’는 [비벼라]이다.

03 ① 현대문법-용언(청유형 종결 어미)

청유형(請誘形) 종결 어미는 동사의 활용형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세, -자, -자구나, -읍시다’ 등이다.

①의 ‘-세’는 하계체에 쓰여,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청유형 종결 어미’이다.

[오답 풀이]

② ‘-아라’는 해라체에 쓰여,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명령형 종결 어미’이다.

③ ‘-게’는 하계체에 쓰여, 손아래나 허물없는 사이에 무엇을 시키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명령형 종결 어미’이다.

④ ‘-구려’는 하오체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하여 흔히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감탄형 종결 어미’이다.

04 ③ 현대문법-용언(자동사와 타동사)

자동사는 목적어 없이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이고, 타동사는 주어와 목적어를 동시에 요구하는 동사이다. 따라서 목적어의 유무로 구별하면 된다. 그런데 국어 동사 중에서는 ‘움직이다, 그치다, 멈추다, 울리다, 휘날리다’ 등과 같이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동사도 존재한다.

③의 ‘움직이다’는

‘자동차가 움직이다’의 경우는 자동사로 쓰인 경우

‘철수가 자동차를 움직이다’의 경우는 타동사로 쓰인 경우이다.

[오답 풀이]

① ‘뺏다’는 ‘철수가 길바닥에 껌을 뺏다’처럼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② ‘쌓이다’는 ‘쌓다’의 피동사로서 ‘책상에 먼지가 쌓이다’처럼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이다.

④ ‘읽다’는 ‘하연이가 책을 읽는다.’처럼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05 ③ 현대문법-음운의 변동

<보기>에서 제시한 변동현상은 모음탈락이다. ③의 ‘가도’는 ‘가(어간)+아도(연결어미)’의 구성이며, 어간 ‘가-’에 어미 ‘-아’가 탈락하여 ‘가도’가 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고(연결어미)

② 가+니(연결어미)

④ 가+면(연결어미)

06 ③ 비문학-고쳐쓰기

‘그런데’는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어이다. ㉞은 두 번째 문장에서 제시한 ‘안구 건조증과 신체적 무기력’을 대등하게 이어주고 있다. 따라서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리고’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유발되는’의 주어는 뒤에 ‘악영향’이다. ‘유발되다’는 ‘~으로/~에서’의 부사어를 필요로 하므로 ‘사용으로’로 수정한다.

② 한자어의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지만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횃수(回數)’는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한자어들이다. 따라서 ㉞은 ‘횃수’로 수정한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8년 5월 19일 교육행정직 A형

2018. 05. 1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④ ㉔은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어울리는 ‘밖에’는 보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07 ② 비문학-말하기(토의)

시설 개선에 관한 외부 사례는 평가 의견에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평가 의견 첫 번째를 보면 ‘관련 예산이 부족’함이 제시되었
- 다.
- ③ 평가 의견 첫 번째를 보면 ‘일반 열람실을 확대하면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된다고 하였다.
- ④ 평가 의견 첫 번째, 두 번째의 의견에서 이용자 수의 증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08 ② 비문학-내용 확인

배심 재판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 가운데서 배심원으로 뽑는다고 하였으므로 법률가인 변호사는 선정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배심원들은 비공개로 토의와 투표를 진행한다.
- ③ 배심원들이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평결하고, 법관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판결한다.
- ④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평결의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여야 한다.

09 ① 비문학-내용 확인

3문단에서 그리스인들은 이탈리아 남부와 시실리, 지중해의 다른 해안으로 퍼져서 도시 국가 형태의 폴리스를 만들었다는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1문단에서, 폴리스들은 정치적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설명과 3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어느 폴리스도 도시 국가 이상으로 커 나가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 ③ 3문단에서 ‘통일된 정부를 두려 하거나 제국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바르지 않다.
- ④ 1문단을 보면 폴리스들은 공통의 언어, 문화, 종교를 바탕으로 서로 동류의식을 가졌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10 ② 비문학-제시 자료와 비교

<보기>의 글에서는 일반 유권자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일반 유권자들은 간접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설명한다. 그러나 2문단에서,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아고라 광장에 모여 공적인 문제에 대해 투표하는 직접 민주주의였으므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오답 풀이]

- ① 2문단을 보면, 아테네는 일부만이 시민이었으며 아무런 권리가 없는 노예들도 매우 많았고 여자들도 정치적 권리가 없었다.
- ③ 2문단에서 아테네 시민들이 아고라 광장에 모여 공적인 문제

에 대해 투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의 대의원들이 아고라에 모두 모여 국정을 결정하였다는 설명은 없다.

④ 2문단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를 시민이 선출한다고 하였다.

11 ② 비문학-글의 전개 방식

1문단에서 빅데이터의 특성을 제시하고, 2문단에서 ‘한 집단의 구성원의 몸무게와 키의 데이터’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다양한 견해를 나열하고 있지 않다.
- ③ 제시 글은 빅데이터의 적용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동작 원리를 증명한 글이 아니다.
- ④ 빅데이터의 장점과 단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12 ① 비문학-내용 확인

2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연결된 데이터 세트를 통해 파생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얻을 수 있는 파생 정보도 늘어난다고 하였으므로 ①의 설명은 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②와 ③, ④는 1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3 ③ 비문학-적절한 어휘

‘추출(抽出)하다’는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냄’을 뜻한다. 따라서 ㉔은 ‘뽑아냄’로 바꿔 쓸 수 있다. ‘섞다’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한데 ‘합치다’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㉔의 ‘내포(內包)되다’는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가 ‘속에 품어짐’을 뜻한다. ‘담기다’는 ‘반영되다, 포함되다’의 뜻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② ㉔의 ‘수록(收錄)되다’는 ‘모아져 기록되다’의 뜻이다. ‘들다’는 ‘안에 담기거나 그 일부를 이루다’는 뜻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④ ㉔의 ‘연결(連結)하다’는 사물과 사물 또는 현상과 현상이 ‘서로 이어지거나 관계를 맺다’는 뜻이다. ‘잇다’는 ‘끊어지지 않게 두 끝을 맞대어 붙이다’는 뜻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14~16] 출전 작품 해설

(가) 조식, ‘강호한정가(江湖間情歌)’

1. 해제: 지리산 양단수(兩端水)를 무릉도원(武陵桃源)에 비유하고 있다. 무릉도원은 동양인들이 동경하는 이상향(理想鄉)이다. 또한, 자연 귀의(自然歸依)를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 즉 선경(仙境)인 것이다. 지은이는 그 곳을 지리산에서 찾고, 그 속에서 마음껏 즐긴 것이다.
2. 주제: 지리산 양단수의 아름다움 예찬



(나) 김영랑, '오월'

1. 해제: 이 작품은 봄의 절정인 오월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으로, 화자의 시선은 '들길, 마을, 보리밭, 꾀꼬리, 산봉우리'로 이동하고 있다. 선명한 색채 대비, 의인법, 향토적 소재를 통해 봄날의 정경과 생명력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으며, '들길, 골목, 보리, 꾀꼬리, 길' 등 일상적인 시어들을 통해 형상화한 오월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봄을 맞은 화자의 기쁨과 흥겨움을 드러내고 있다.

2. 핵심정리

- 1) 성격: 탐미적, 낭만적, 묘사적
- 2) 주제: 오월에 느끼는 봄의 생동감, 오월의 싱그러움, 자연에 대한 사랑.
- 3) 특징

-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이 시에서 화자는 '들길 → 마을 → 들 → 보리밭 → 꾀꼬리 → 산봉우리'로 이어지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오월의 생명력 넘치는 풍경을 그려 내고 있다.
- 의인화와 색채 대비를 통해 오월의 생동감을 강조함.
-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쾌한 음악성을 느낄 수 있음.
- 이 작품에 나타난 음악성: 오월 봄날의 생동하는 풍경을 김영랑 시인 특유의 경쾌한 음악성과 뛰어난 언어의 조탁 등을 통해 인상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이랑'과 같은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특히 '-자, -고, -다, -뿐'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시 전체에 운율감을 부여하고 있다.
- 4) 구성
 - 1~2행: 푸른 들밭의 모습, 봄을 맞이한 들길과 마을의 정경
 - 3~5행: 햇빛이 비추는 보리밭과 봄바람에 흔들리는 보리
 - 6~11행: 꾀꼬리의 정다운 모습과 봄빛이 아름다운 산의 풍경

14 ① 문학-고시조와 현대시의 공통점

(가)는 드루산(지리산) 양단수(兩端水)를 무릉도원(武陵桃源)에 비유하여 양단수의 아름다움을 예찬하였고, (나)는 봄의 절정인 오월의 풍경을 선명한 색채 대비, 의인법, 향토적 소재를 통해 봄날의 생명력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④의 설명은 (가)와 (나)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15 ② 고전문학-고시조(시어의 의미)

지리산 양단수(兩端水)를 무릉도원(武陵桃源)에 비유하고 있다. 무릉도원은 동양인들이 동경하는 이상향(理想郷)이다. 또한, 자연 귀의(自然歸依)를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낙원(樂園)'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③ 오지(奧地): 해안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의 땅. '두메'로 순화.
- ④ 정상(頂上): ㉠산 따위의 맨 꼭대기. ㉡그 이상 더없는 최고의 지위나 등급

16 ④ 현대시-표현상 특징

④ [D]는 봄빛이 물들어가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넓게 단장하고 아양을 부리는 여인의 모습으로 의인화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사철 내내 변함없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A]: '붉어지고' '푸르러'지는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마을과 들길의 모습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② [B]: 바람이 불어 갈라지는 보리밭의 이랑 사이로 햇빛이 비취 반짝이는 모습이다.
- ③ [C]: '~이라 ~ㄹ 뿐'을 반복해서 햇빛에 반짝이는 꾀꼬리 한 쌍이 서로 어울려 정답게 날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17~18] 출전: 채만식, '미스터 방'

1. 해제: 이 작품은 '방상복'이라는 보잘것없는 인물이 '미스터 방'이라는 인물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을 통해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에 발 빠르게 적응해 가는 인물의 삶을 희화적이고 풍자적으로 그려 당시의 세태와 인간상을 비판하고 있다.
2. 핵심 정리
 - 1) 갈래: 단편 소설, 세태 소설, 풍자 소설
 - 2) 성격: 풍자적, 해학적, 현실 비판적
 - 3) 배경
 - 시간 - 광복 직후
 - 공간 - 서울
 - 5) 주제: 권력을 쫓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와 인간상 비판
 - 6) 인물 소개
 - 방상복: 신기료장수를 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처지였으나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 광복 직후 미군 장교의 통역으로 취직해 출셋길에 오른다.
 - 백 주사: 전형적인 친일파로, 광복이 되어 군중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긴 뒤 피신해 있다가 방상복의 도움으로 복수를 하고 일제 강점기에 누렸던 부(富)를 회복하고자 한다.
 - S 소위: 광복 직후 우리나라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 장교로, 방상복을 출세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17 ③ 현대소설-글의 서사적 기능

③ [B]는 작품의 결말 부분으로서, '미스터 방(방상복)'은 무심코 뺏은 자신의 양치목이 'S 소위'의 얼굴에 떨어지는 바람에 'S 소위'에게 턱을 가격 당한다. 이것은 방상복의 몰락을 암시하며 인물을 희화화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A]에는 백 주사의 심리를 표현한 부분으로서, 인물 간의 대화, 외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② [A]에는 공간적 배경이나 비극적인 분위기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④ [B]는 과거 사건의 요약이 아니라, 작품의 결말 부분으로서 방상복의 행동을 통하여 몰락을 암시하고 있다.



18 ④ 현대소설-인물의 이해

④ 미스터 방은 자신의 말이면 '기관총 들멘 엠피(미군)'를 동원하여 백 주사의 부탁을 들어 줄 수 있다고 과시하는 것이지 '기관총 들멘 엠피(미군)'를 조롱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백 주사는 전형적인 친일파로, 광복이 되어 재산을 빼앗긴 뒤 피신해 있다가 방상복의 도움으로 복수를 하고 일제 강점기에 누렸던 부(富)를 회복하고자 한다.
- ② 백 주사는 방상복의 태도가 불쾌하였고, 몇 번이나 일어설 생각이 나지만 참는다. '미스터 방'에게 머리를 숙이는 상황 등은 방상복의 세도를 빌리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다.
- ③ 미스터 방은 백 주사의 부탁에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멘 엠피가~쑥발을 만들어 놨습니다"라며 '분풀이'를 약속하고 자기를 과시한다.

※ [19·20]출전: 박지원, '광문자전(廣文者傳)'

1. 해제: 이 작품은 박지원의 한문 소설로, 거지 '광문'의 일화를 통해 당대의 현실을 풍자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바람직한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다. 거지인 광문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알고 마음씨가 따뜻하며 욕심 없고 소탈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연암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인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 설정은 인간성을 중시하고 남녀 귀천에 관계없이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한 연암의 근대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핵심 정리

- 1) 갈래: 한문 소설, 단편 소설, 풍자 소설
- 2) 성격: 풍자적, 사실적
- 3) 배경: 조선 후기, 한양의 종루 저자
- 4) 주제
 - 정직하고 신의 있는 삶에 대한 예찬
 -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사회에 대한 풍자

5) 특징

- 양반 계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표출된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함.
- 거지 '광문(廣文)'의 인품을 예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 효과

6) 인물 소개

- 광문: 못생기고 신분이 천한 거지의 우두머리. 정직하고 신의가 있으며 타인의 어려움을 돌보는 따뜻한 심성을 가진 인물로, 물질에 집착하지 않으며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을 지닌 새로운 인간형이다.

19 ① 현대소설-표현상 특징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남들이 광문에게 장가를 가라고 권할 때,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할 때, 기생 운심과의 일화 등을 제시하여, 주인공인 광문이는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자유롭게 당당하게 빈부귀천(貧富貴賤)에 구애받지 않고 어울리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주인공인 광문의 심리가 변하지 않는다.
- ③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간단한 대화는 제시되어 있으나, 인물 간 대화를 통한 긴장과 이완의 교차는 없다.

20 ③ 현대소설-상황에 알맞은 한자성어의 적용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광문에게 권하면, 광문이는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며 욕심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의 태도이다.

[오답 풀이]

- ①, ③, ④의 한자성어들은 모두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
- ① 낭중지추(囊中之錘 : 囊 주머니 낭/中 가운데 중/之 갈 지/錘 송곳 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비유적 의미.
- ② 교언영색(巧言令色 : 巧 공교할 교/言 말씀 언/令 하여금 영/色 빛 색)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묘히 꾸며서 하는 말과 아첨(阿諛)하는 얼굴빛.
- ④ 구밀복검(口蜜腹劍 : 口 입 구/蜜 꿀 밀/腹 배 복/劍 칼 검) 입으로는 달콤함을 말하나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친절하나 마음속은 음흉한 것.